



외대학보

3 양 배움터 축제 취소

4 동·서대 광역화 실시, 중간 점검

5 박상미 교수의 문화인류 이야기

8 한국에서 만나는 프랑스 연극, 카티 라팽 교수



정혜림 교수

세계를 품은 외대의 60년, 세계를 이끌 100년의 약속 우리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 열려



▲개교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외대상을 받은 동문들의 모습이다. 왼쪽부터 ▲양인철(일본어 76) ▲김인철 총장 ▲최상학(영어 54) ▲윤윤수(정치외교 66) 동문이다. 외대상은 우리학교 세계화에 기여한 동문들에게 주는 상이다.

우리학교 개교 6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지난 달 18일 서울배움터 오바마홀에서 열렸다. 문명재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교직원과 학생 및 내외귀빈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954년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5개 외국어 교육으로 시작된 우리학교의 발전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남주 이사장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학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화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해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한 대학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60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김인철 총장은 “우리 학교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무엇을 성취해 나가는지, 어떻게 얼마나 우리 사회와 인류에 이바지하는지 지켜봐달라”며 “오늘 이 자리가 100년 외대의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교원·직원 포상, 외대상 수여가 있었다. 이날 외대상을 수상한 휠라코리아(주) 대표이사 윤윤수(정치외교 66) 동문은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내가 받아 받지 못한 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상을 받게 돼 대단한 영광”이라며 수상소감을 말했다. 이어 Hufs 강의를 수강한 김상열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는 “교수라는 직업이 강의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본래 뜻에 맞는 상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뜻하지 못했던 상이었던 만큼 재촉처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행사 마지막에는 60주년을 기념해 각계각층 동문들의 축하영상과 개교부터 지금까지 우리학교가 걸어온 발자취 등을 담은 개교 60주년 기념 홍보영상 시청이 있었다. 이어 100년 외대 비전 선포문을 낭독했다. 글로벌 융복합 선도대학 지향할 미래상으로 한 선포문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발전 △인본적인 가치와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로 성장 △전

문적인 행정 서비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송유정(중국·중국 14) 양은 “입학한 이번 해가 우리학교 60주년이라 굉장히 뜻깊고 기념 영상과 100년 외대 비전 선포문을 보니 뿌듯하고 대단하신 선배들이 많다”며 “앞으로 대학생활이 기대되고 열심히 공부해 선배들의 뒤를 이을 훌륭한 외대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행사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오바마홀에서 ‘외대인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이남주 이사장, 김인철 총장, 권순한 총동문회장의 토크콘서트와 안성기 동문과 임종부 뉴욕동문회 전(前) 회장의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더불어 이덕선 ATG회장 동문의 장학기금 전달과 만찬, 주요동문 인터뷰도 있었다. 특히 이덕선 ATG회장 동문은 이날 장학금으로 100만 달러를 기금했다. 뒤이어 그동안 이덕선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과 함께 등장해 꽃을 전달하는 깜짝 행사가 펼쳐져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개교 60주년 행사인 ‘외대인의 밤’은 송승환(아랍어 76) 동문의 난타 공연과 마술사 김종수, 가수 이승훈의 축하공연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고 행사 수익을 희생자를 위한 참석자 전원의 묵념으로 시작하는 등 경건하고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학교의 모습을 그리며, 60년을 넘어 100년 외대로



이남주 학교법인
동원영회 이사장

수 있게 돼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1954년 4월 20일, 우리학교 설립자 김홍배 박사가 60년 전 종로 임시 교사에서의 첫 수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며 창조적 미래를 만들어 가는 자랑스러운 외대인을 떠올리셨을 것으로 추측해봅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우리학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화의 역

사와 맥을 같이 하며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꾸준히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오늘 우리학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한 대학으로 성장했고 세계가 주목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많은 구성원의 노력의 흔적이, 그리고 외대인의 미래·세계 지향적인 열정의 자화상이 오늘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2014년은 1980년 글로벌배움터 개설 이후 33년 만에 통합을 이뤄 명실공히 대형 대학의 위상으로 다시 출발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과거 성장에 도취돼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외대 100년의 미래를 위해 힘과 긍지를 모아 더 높은 비전을 설계하고, 질적 성장을 이룩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0

년 전 설립자께서 품으신 창학 이념인 ‘진리’의 탐구를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창조’적인 인재 양성의 큰 뜻을 다시금 새기고 주어진 사명을 담담하게 이어나갈 때 가까운 미래에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학교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간 60년의 역사가 우리 외대인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더욱 공고해지고 그 힘을 묶어 우리 사회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가올 외대 100년의 희망찬 역사를 설계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한국외국어대학교 60년을 축하드립니다.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며



김인철 총장

1954년 한국 최초의 외국어 전문 고등 교육기관으로 개교해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사명을 다해 온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이번 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정의 폐허 속에서故 김홍배 박사가 5개 외국어학과만으로 시작한 이 학교는 이제 5대양 6대주에서 잠들지 않는 대학이 되어 누구도 이를 수 없는 외대만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60년 역사와 전통을 밑거름으로 새로운 ‘100년 외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학교는 이제 행·재정적 역량 제고와 학문적 통섭과 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나갈 때입니다.

우리는 ‘100년 외대’ 개척의 일환으로 서울배움터에 대학타운 조성 시작하고, 글로벌배움터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외대병원의 배속을 탐색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관·산·학 협업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 학문 시장의 수요변화에 조응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문학과 지역학이라는 우리학교의 고유 가치를 심화하고 그에 기반한 융·복합으로 저변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이번 해부터 시작된 양 배움터의 통합운영에 맞추어 글로벌캠퍼스에 100년 비전을 담아 또 다른 한국외대를 개척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대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한 인식을 존중하고 소통을 중시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른바 ‘또 다른 외대’는 우리 대학의 재단, 교수·학생·직원, 그리고 12만 전 동문을 아우르는 인식의 공유와 이를 위한 공론장 위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외대만의 가치있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 발전이라는 사명 아래, 하나 되어 인내하고 헌신·봉사한다면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한국외대를 향한 당면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외대가족 여러분, 개교 60년을 맞이하는 이번 해는 100년 한국외대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 된 우리의 노력은 영광스러운 한국외대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또 다른 외대’를 만들어 나가는 힘찬 발걸음에 모두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세계최고 명문대학으로 만들어갑시다”



권순한 총동문회장

이렇게 화사한 봄날에 자랑스러운 우리학교의 건학 60주년을 맞아 전 세계 12만 동문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번 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주기를 시작하는 건학 60주년을 맞을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본교와 분교 체계로 운영되던 서울배움터와 글로벌배움터가 하나의 캠퍼스로 통합 출범하는 원년입니다. 게다가 2월에는 김인철 교수님이 새 총장으로 취임하시어 새롭게 발전하는

우리학교의 모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해는 아마도 우리학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대학교, 세계적인 외국어대학교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년 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우리학교를 방문한 것도 이를 확인시켜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학교가 과거의 영광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패일수록 우리 동문들이 합심해 모교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고 봅니다.

“국적은 바꾸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모교는 자부

심의 원천이자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학교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명문대학에는 반드시 명문 동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명문 동문이 되어 주신다면 건학 100년을 맞는 40년 후에는 우리학교가 세계 최고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희 총동문회는 앞으로도 모교의 발전과 동문들의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대 가족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크고도 강한 외대가 되길



박용구 교수협의회장

지구촌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을 모든 외대 가족과 함께 개교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타가 공인하듯 물 건너가보면 외대인의 파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화시대의 수출 역군으로 세계를 누빈 동문들이 있었기에 우리학교는 일찌감치 세계 속의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외국어 기반의 건학 정신이 빛을 발한 덕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발전을 선도해 온 우리 앞에 놓인 지금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듯합니다. 외국어가 모두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금 외국어 실력만으로는 천하를 호령할 수 없습니다. 정보화시대의 급물살 속에 세상은 심 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평가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격이 매겨집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우리학교도 예

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고등교육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40만 명인 초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년까지 56만 명인 현재의 대학입학 정원을 40만 명까지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 60년을 자축하는 한편 안팎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양 배움터 통합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학교 구조 조정과 특성화의 시발점으로 작용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배움터의 평판도와 글로벌배움터의 공간이라는 상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이 강구되길 바랍니다.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데도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재단과 학교 집행부는 합심해 우리학교의 비전과 행동강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단은 전입금을 늘려 학교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총장은 우리학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성원과의 소통 속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교수는 연구와 교육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은 원대한 꿈을 품고 그 꿈을 실현시킬 자질을 기르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직원은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측면지원 역시 절실합니다.

공자는 60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70세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합니다.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 후 그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지만 강한 우리학교의 명성이 크고도 강한 외대로 승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길

신승철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장

우리학교 60주년을 맞아 외대 가족 모두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진리, 평화, 창조의 기치 아래 국제적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깊이 느낀 설립자의 미래지향적인 판단으로 설립된 우리학교가 60년간 배출한 12만 동문들은 우리나라를 무역대국으로 성장시키는 초석이 되었음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영광을 자랑하며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0년은 그야말로 앞만 보고 전진한 세월이었다고 본다면, 이제 이순의 나이를 맞이한 우리학교는 여유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을 바탕으로 세계의 발전, 평화와 공존의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 속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학교가 세계의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내부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을 때 조직의 경쟁력은 제고될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식이 싹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하나로 뭉쳐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조직의 앞날은 매우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60년 우리학교의 역사를 디딤돌로 100년의 역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날이 치열해져가는 경쟁의 세계에서 우리학교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 시대에 맞는, 한국외국어대학교만이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와 세계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를 선도할 가치를 구축해 세계 선도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이 역사의 변화와 더불어 역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이룩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인 설립자와 12만 동문, 구성원 모두의 노고에게 감사드리며, 이제 100년 대계의 중대한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은 김인철 총장님과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울이는 노력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어 100주년 우리학교의 위상이 세계에 떨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빌어 봅니다.

우리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번 해 60주년을 맞은 우리 학교의 학생, 직원, 교수, 세계 각지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60년간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모든 구성원의 노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2014년은 본·분교통합으로 양 배움터의 균형발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대형대 학으로서 발돋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보다 다양한 전공 선택과 융복합된 학문을 습득할 수 있어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신입총장께서 취임하시며 공약했던 글로벌배움터의 자율행정강화, 교육 및 시설 등의 인프라 개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여건개선, 장학, 행정, 연구 등 여러 정책들을 이뤄 내며 우리학교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완공되고 있는 신본관은 60주년을 맞은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의 랜드마크가 돼 앞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나갈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교기념식에서 과거의 성장에 도취되어 안주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설계하고 질적 성장을 이룩하자라는 이사장님의 축사와 같이 지난 60년간의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0년, 더 나아가 영원히 우리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외국어대학교의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홍성훈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소통 통해 위기극복하길

김범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진리, 평화, 창조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우리학교는 1954년 개교해 드디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학생으로서 우리학교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경사스러운 한 해를 같이 보내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6·25 전쟁 폐허 속에 작게 시작된 우리학교는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글로벌 대학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마음 속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4월 18일 60주년 기념식에서 선보인 '세계를 품은 60년! 세계를 이끌 100년!'이라는 슬로건이 뜻하는 바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외대가 되길 기원합니다.

60주년이 뜻깊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60주년을 맞이했다고 외대의 위기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8년간 학교본부는 대외 이미지만 고려할 뿐 학내 구성원에 대한 일말의 배려조차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60주년을 맞이한만큼 교수, 직원, 학생이 모두 고통받았던 8년을 되돌아보며 교내에 산재해있는 불만과 문제점을 선결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해 외대의 위기는 소통의 부재로부터 다시 한 번 찾아왔습니다. 8천 학우가 간절히 바랐던 소통은 60주년 기념식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학교의 최고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설립자 동상 건립 과정에서 재단과 총동문회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묻고자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추후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본부와 재단에 전달하기는 했지만 이전과 다를바 없는 모습에 많은 학생이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오로지 입결 상승만을 위한 학교의 모습에 학생들은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입결이 대학평가의 가장 큰 지표임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2013년 자전 폐지 사태를 떠올리며 그 다음은 자신의 과가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바뀐 학사제도들이 정착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모르는 체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소통'의 문제입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해, 학생들도 기대하는 바가 정말 큼니다. 총장님이 바뀌었고 처장단 또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도 학교 역시 바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교와 학생 사이에 쌓여있었던 불신이라는 높은 벽을 학교본부와 학생이 힘을 합쳐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소통'이 다시 한 번 필요합니다.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주는 학교본부, 재단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6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때맞춰 알맞게 내리는 반가운 비
시우(時雨)처럼

필요한 순간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금융이 되겠습니다

'시우(時雨)금융'이란 때맞춰 알맞게 내리는 비처럼
필요할 때 고객에게 힘이 되겠다는 KB금융그룹의 철학입니다

KB 국민은행
KB 생명
KB 저축은행
KB 신용정보

KB 국민카드
KB 자산운용
KB 부동산신탁
KB 데이터시스템

KB 투자증권
KB 캐피탈
KB 인베스트먼트

KB 금융그룹

결의 앞두고 사라진 학생들

지난 학기 이은 정총 성사는 실패



▲정기학생총회가 시작될 때 잔디광장을 가득 채웠던 900여명의 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리를 이탈했다. 결국 정기학생총회가 끝날 즈음에는 남아있는 학생보다 빈 자리가 더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8일 오후 6시 서울배움터 잔디광장에서 1학기 정기학생총회(이하 정총)가 열렸다. 쌀쌀한 날씨에도 890명의 학생이 참석해 지난 해 2학기에 이어 정총이 성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안전을

홍배 박사 동상 설립 추후 대응 △자치회비 비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를 거쳐 자치 공간 회수 성명서와 학생자치권 보존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의하는 과정에서 재적 인원 8395명의 10%인 정족수 840명보다 남은 인원이 적어 결국 정총은 무산됐다.

이번 정총에서는 총학생회(이하 총학) 상반기 활동, 사업 내용 공유와 계획, 상반기 면담 내용, 중앙감사위원회 일정, 예산에 대한 보고 및 심의가 있었다. 이어 △자치공간 회수 성명서 채택 △학생자치권 보존에 대한 결의안 채택 △흡연공간 설정 △원어강의 실정 공유 및 비율 조정 △김

일부 안전에 대해서는 총학과 학생이 질의를 답을 거치며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자치공간 24시간 개방에 관해 이지원(동양어·인도어 12) 부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안전 문제와 음주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공간을 24시간 개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이지원 부총학생회장은 “관제실이 모든 상황을 감시할 수 없는 만큼 일반 학우를 대상으로 자경단을 꾸려 1~2시간마다 자치공간을 순찰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뒤이어 “자치공간을 되찾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불사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또한 지난 해 47대 총학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한 흡연공간에 대해 이번 해에 반드시 마무리를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건물 내 금연 장소에 담배 연기 경보기를 설치하고, 야외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테이프를 붙여 흡연구역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12일부터 21일까지 서포터즈를 모집해 26일부터 6월 5일까지 흡연구역 지키기 캠페

인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회과학관과 인문과학관 등 계획된 흡연구역 외에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버관이나 도서관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김범(국제 11) 총학생회장은 “사이버관은 3층에 흡연구역이 잘 이뤄져있어 제외했고 도서관 정문은 보행자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흡연구역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정총은 2013년 2학기 잔디광장에서 처음 열렸던 정총에 비해 스크린, 조명 등 기자재를 갖춰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지만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지는 못했다. 또한 안전자료집에 실린 그래프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등 자료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혜인(사회·미디어 14) 양은 “분위기가 난잡해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며 “야외에서 진행한 탓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태도도 문제인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번 정총에서 결의되지 못한 안전은 추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다시 안전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4·19혁명 그 날을 기억하자

우리학교 4·19민주혁명동지회 주최 장학금수여식



▲4·19민주혁명동지회 주최 제 5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12명의 동지회 동문들과 5명의 장학생들의 모습이다.

지난 달 18일 서울배움터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우리학교 4·19민주혁명동지회가 주최한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4·19민주혁명의 54주년과 우리 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장학금으로 선발된 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하는 자리였다. 장학금을 전달하고 자 류제봉 회장(영어 57)을 비롯해 12명의 동지회 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4·19혁명동지회회장 류제봉 회장의 기념사, 김인철 총장의 축사, 장학증서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을 마친 뒤 4·19민주혁명동지회원과 장학생들은 잔디광장 앞에 있는 4·19혁명 50주년 기념비를 둘러보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류제봉 회장은 “4·19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이념을 세운 날”이라며 “그 정신이 아직까

지 대한민국의 생명수가 되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이번 행사를 기념했다. 이어서 “고귀한 4·19혁명의 정신이 60주년을 맞은 우리학교의 무궁한 발전에도 소중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날 장학금을 받은 송윤경(영어·영 12)양은 “요즘 대학생들은 4·19라는 큰 의미를 지닌 날을 잊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4·19혁명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고마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의 정치발전사에 큰 획을 그은 우리학교 4·19혁명동지회는 4·19혁명 기념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투쟁사로써의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열어왔다. 아울러 동지회는 2010년 4·19혁명 50주년을 맞아 서울배움터에 50주년 기념탑을 제막했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에도 힘써왔다.

임유선 기자 88lys@hufs.ac.kr

세월호 그 후...

양 배움터 5월 행사 취소

지난 달 16일 있었던 세월호 참사 후 양 배움터 대동제가 취소됐다. 김범(국제 11)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국이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시점에 대동제를 진행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글로벌배움터에서는 7~9일 3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천극장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마련해 애도를 표했다.

서울배움터에서 21~23일 예정됐던 축제는 취소됐지만 19~23일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동아리 및 소모임 공연 △명사 초청 강연회 △학회와 함께하는 영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동연은 ‘공연 시 드림을 제외하고, 총학은 시끄러운 음악은 자제하는 등 노래 선곡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배움터에서는 축제 취소와 함께 1학기에 예정된 공과대학, 통변역대학, 동유럽대학의 단과대학 체전을 무기한 연기했다. 나머지 경상대학, 인문대학, 국제지역대학은 체전을 13~21일에 진행할 예정이고 자연과학대학은 5월내 계획으로 일정 조정 중이다.

이에 임대치(통변역·일본어 09) 통변역대 학생회장은 “체전 기획 중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잠정적 보류를 하게 됐다”며 “추후 행사는 애도기간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시형(공과·산업경영 12) 군은 “5월 중 재밌는 행사들을 즐기지 못해 아쉽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학도 자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www.lottehotel.com

SUMMER BREEZE PROMOTION

- | | |
|-----|---|
| 대 상 | 7~8월 예식 신규 예약 고객 (하객 200명 이상) |
| 혜 택 | Welcome Reception 제공
웨딩메뉴 10% 할인
테이블당 와인 1병 무료 제공
웨딩 국수 제공
웨딩 케이크 제공 (크리스탈볼룸 고객 한정)
무료 발렛 서비스 (하객 차량의 50%) |
| 기 간 | 2014년 8월 31일까지 |



이번 해부터 우리학교 동양어대학(이하 동대), 서양어대학(이하 서대),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4개 단과대학에서 모집단위를 광역화했다. 광역모집으로 학생들에게 전공탐색 및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입시결과가 상승하는 결과도 얻었다. 하지만 광역모집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광역모집대학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큰 대학은 서대와 동대이다. 학교생활과 교과과정상에서 두 단과대학(이하 단대)의 정시입학생(이하 정시생)과 수시입학생(이하 수시생)간 차이점이 가장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기 초부터 두 단대 신입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학기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 두 단대의 광역화를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학교 측의 개선방안도 들어본다.

2014학년도 새로워진 한국외대

정시 광역화 모집



◆ 두 단대 공통의 고민거리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해 두 단대는 공통적으로 신입생 정원의 60%인 수시생을 학과로, 정원의 40%인 정시생을 광역모집으로 뽑았다. 이로 인해 광역모집된 두 단대 정시생 사이에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입학 첫 학기에 두 단대 정시생은 학과 내 선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생에 비해 수업을 듣는 것은 물론 학교생활에도 적응하기 힘들다. 서대 정시생인 정수빈 양은 “정시생이라고 하면 과 선배들이 상대적으로 후배로 생각하지 않고 과 행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동대 정시생인 이은화 양도 “중간고사 시험을 공부하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도 물어볼 선배가 없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두 단대 학생회는 정시생을 이끌어줄 멘토 선배를 이들에게 배정했다. 하지만 한 명의 멘토 선배가 챙겨야 할 학생이 평균 10명 이상으로 정시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했다.

두 단대 정시생은 소속된 학과가 없어 과방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궁여지책으로 정시생을 위해 마련된 두 단대실의 공간은 각각 100명 이상의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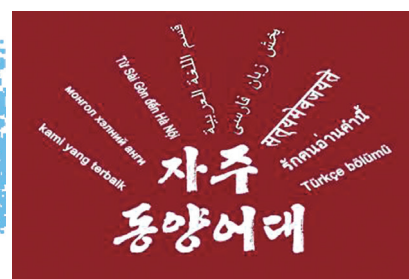
또한 서대의 경우 신입생 전체가 이번 학기에 전공수업이 제한돼 수강할 수 없고 2학기부터 수강가능하다. 따라서 전공의 교과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동대 정시생도 학과가 정해지는 2학기부터 전공 교과과정을 제대로 밟을 수 있다. 따라서 두 단대 신입생들에게는 2학기에도 일부 1학기 전공과목의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대 정시생인 강경리 양은 “선행되어야 하는 전공과목이 1학기에만 개설돼 다음 학기 전공 수업을 듣기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대의 경우에는 1학기 과목을 2학기에도 개설해 신입생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동규(서양어 · 노어 12) 서대 학생회장은 “1학기개설 과목을 2학기에도 개설하기로 김상열 서대 학장과 논의를 마쳤고 과목 수요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서대만의 교과과정 방식

서대만의 가장 큰 특징은 대량 신설된 기초공통교양과목과 정·수시생 구분 없는 교과과정 운영에 있다. 학과가 정해진 수시생이라든가 1학기 동안은 정시생과 마찬가지로 해당학과의 전공언어 수업을 들을 수 없다. 서대는 이번 모집단위 광역화를 준비하며 문학, 문화, 언어, 지역학 4개 분야의 총 20개 공통교양과목을 신설했다. 신설된 공통교양과목은 정·수시생 구분 없이 서대 신입생이라면 모두 각 분야별 1과목씩 의무로 수강해야 한다.

또한 서대 신입생들은 실용외국어 중 실용영어만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입생들은 신입생세미나와 이번 학기 신설된 흡스프로세미나까지 의무로 듣는다. 의무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많다보니 과목선택에 제약을 받고 시간표를 구성하는 것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승언(서양 · 노어 14) 군은 “기초공통교양과목 4개, 신입생세미나, 흡스프로세미나에 실용영어까지 듣다보면 1학년 때 들을 수 있는 교양이 두 세 개 정도 밖에 안 된다”며 “듣고 싶은 교양이 있어도 들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열 서대 학장은 “기초공통교양과목을 정착시켜 서대생의 기본적인 소양을 키워주는 강제로 만들고 싶다”며 “시행초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무화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 많은 수의 공통교양과목 개설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신설된 공통교양과목 수업의 질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서대 정시생인 김다희 양은 “신설과목에 대한 준비기간이 짧아서인지 과목명과 실제 수업내용이 많이 달랐다”고 말했다. 정수빈 양도 “유럽전반에 대해 다루기보다는 해당 과목의 교수가 소속한 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업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열 서대 학장은 “한명의 교수가 유럽전체를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과의 교수가 팀티칭을 하도록 구성하거나 부족한 교수 채용 및 특강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용영어를 필수 수강해야 하는 것도 서대만의 특징이다. 서대 정시생인 양희연 양은 “왜 서대 신입생은 실용영어만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강할 수 있는 실용영어 수업을 한정해 시간표구성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상열 서대 학장은 “서대 신입생들에게 영어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당장은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실용영어 의무수강은 1학기만 해당되며 2학기에는 실용영어를 수강하지 않고 FLEX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한 학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영어강의를 수강해 영어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밖에도 수시생들만의 불만도 존재한다. 서대 수시생들은 처음부터 전공언어를 선택하고 입학했지만 첫 학기에는 전공언어를 배울 수 없다. 김소영(서양어 · 네덜란드어 14) 양은 “네덜란드어를 배우려고 왔는데 첫 학기 동안은 크게 유럽전반에 대해 다루는 수업만 들어야 해서 사실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상열 학장은 “향후에는 교수들 간 논의를 거쳐 신입생들이 들을 수 있는 전공과목을 각 학과마다 더 많이 개방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 서대와 닮은 듯 다른 동대의 교과과정운영

반면 동대는 서대처럼 신입생을 위한 다수의 공통교양과목을 신설하지 않았다.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서대와 달리 동대 수시생들은 광역모집 이전처럼 학과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따른다. 또한 정시생들도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과의 전공언어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전공탐색을 돕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언어, 문화를 다루는 4개의 공통전공과목을 신설했다. 신입생은 이중 2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과과정 운영에도 학생의 불만은 존재했다. 동대 정시생인 강경리 양은 “공통전공과목은 출석만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Pass/Fail'형식이라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며 “학생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불쾌해하는 교수도 있고, 총 수업 시간 2시간 중 1시간 만에 마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연 동대 학장은 “애초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Pass/Fail'로 수업을 개설했으나 학생들의 성의가 부족해 다음 해에는 수업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전망했다.

모집단위 광역화의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전공탐색 기회를 부여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대로 동대 정시생들이 전공탐색을 하고 있을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정시생인 이은화 양은 “동대 학생들은 개강할 때부터 2학기에 선택할 학과를 고려해 탐색이 아닌 한두개의 지망전공에만 집중하고 있다”이라 현 상태를 말했다. 김영연 동대 학장은 “동대 교수님들이 전공과목 개설을 고수하려 했기 때문에 기존 교과과정을 변경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교과과정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순점에 대해 정시생인 성한빛 양은 “차라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선 공통필수과목을 입학도 전에 미리 듣도록 해야 전공탐색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시생들은 첫 학기부터 전공학과의 교과과정을 따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수시생들은 전공언어의 실력을 쌓는 반면 정시생들은 상대적으로 전공 학업이 뒤처지는 것이다. 이를 염려한 정시생은 지망학과의 수업을 미리 듣기도 하지만 해당 학과에 배정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은화 양은 “수시생에 비해 정시생의 학업량이 절반이나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연 학장은 “동대 8개 학과는 각 학과만의 방식으로 정시생 대상 보충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충교육의 한 방식으로 제시된 방학특강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와 비교적 짧은 진행기간으로 효과는 불확실하다.

◆ 광역모집 첫 해, 그 이후의 운영방향

앞으로 모집단위 광역화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제도도입 첫 해에 겪은 시행착오를 다음 해 신입생들에게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두 단대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크게 지적된 정시생의 소속감 부족을 줄이기 위해 김동규 서대 학생회장은 “학교도 학생회도 처음 맞는 제도다 보니 신입생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비해 학생의 소속감이 결여된 거 같다”며 “향후에는 서대 전체 신입생을 중심으로 한 행사를 많이 만들고 정시생들을 이끌어줄 멘토 선배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행 첫 해에 미비했던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고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은비(동양어 · 인도어 12) 동대 학생회장은 “이번 해는 학과배정대구가 제대로 공지되지 못한 것도 학생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시켰다”며 향후 제대로 된 홈페이지에 규정 공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개선방안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영연 동대 학장은 “2015년에는 이번학기 시행착오를 반영해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이라 말했고 김상열 서대 학장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광역모집의 궁극적인 성공여부를 따져볼 것”이라며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내다봤다.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인간의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다

박상미 교수

김장문화 유네스코 등재의 주역 우리학교 문화인류학자 박상미 교수



▲지난 달 25일 박상미 교수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경북공예 경회루와 근정전, 사정전, 천추전 등을 안내하는 모습이다. 문화재청이 미국 측에 추천한 가이드 중 박 교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 쟁기념관과 경복궁을 찾았을 때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익숙한 얼굴이 비쳤다. 우리학교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교수는 지난 해 12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영어실력만으로 보면 박 교수보다 월등한 통역사가 많았지만 문화재 안내는 그가 담당했다. 박 교수가 국내 문화인류학의 손꼽히는 학자 중 한명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국내에서 인류학을 전공한 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문화인류학 학위를 취득했다. 정부장학금을 받고 간 유학길이다. 그의 전공분야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세계화(Globalization), 소비문화(Consumption and Culture), 음식문화다. 현재 문화인류학자로서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박 교수는 무형유산을 주로 연구한다. 얼마 전 그의 활약으로 등재된 김장문화도 무형유산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 의 전동역에서도 조선 역대 국왕의 즉위식과 대례가 거행된 경복궁 근정전의 용상 등을 설명했다. 또 최근 국내로 반환된 어보 등 조선왕조 유물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다. 주로 무형유산의 위대함을 설명한 것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국내 문화유산 사업의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그의 주요 역할이다. 특히 유네스코 관련 업무가 주를 이룬다.

문화인류학자가 말하는 문화 그리고 문화인류학 “문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문화재위원회’가 생각하는 문화란 무엇인가를 묻자 박 교수는 대뜸 문화의 반대말을 물었다. 정적이 흐른 뒤 그는 “자연”이라고 말했다. “자연은 주어진 그대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상태다. 반면 문화는 인류가 지혜를 모으고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내고 축적한 것이다. 문화는 사고방식일 수도 행동일 수도 있다”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또 “문화인류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사고와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다른 문화와 비교해 인간의 공통적인 심성이나 차이를 연구하는 것으로 인류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표로 한 학문”이라고 덧붙였다.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 ... 김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주역으로 활약

박 교수의 논문 중에는 음식과 관련된 논문이 유독 많다. 흥미로 시작했던 음식문화 연구는 그녀에게 인류학적으로 많은 정보를 줬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음식을 통한 인류의 이해’는 우리가 먹는 음식, 혹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그 음식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금기 음식은 그 공동체가 개인에게 미치는 의미와 영향을 가늠케 한다. 또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의 역할과 의미를 밝혀내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공동체 속에서 먹는 행위를 혼자 하는 것과 집단으로 하는 차이를 통해 사회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가능하다.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의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은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도움을 줬다. 그는 “김치가 아닌 김장문화라는 삶의 방식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등재신청서 제목도 그래서 ‘김장: 김치만들기와 나누기(Kimchi: making and sharing Kimchi)’다. 박 교수는 김장문화가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나눔의 문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작성한 김장문화 신청서는 유네스코 심사에서 ‘베스트7’로도 선정됐다. 박 교수는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복사용지 25장 분량으로 구성된 신청서 작성에만 1년 이상 공들였다.

지난 2003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에 대한 박 교수의 이해도 김장문화 신청서가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다. 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전문가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약의 철학과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유네스코가 무형유산 분야에서 중시한 것은 인류의 다양성을 잘 구현하는 대표성이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은 대표목록과 위기 목록으로 나뉜다. 대표목록이 인류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면 위기목록은 소멸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을 스스로보호할 능력이 없는 국가가 주로 신청하는 것이 위기목록이다. 우리나라는 대표목록 등재를 목표로 해 왔다.

대표목록 등재의 관건은 인류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어필하는 것이다. 다른 요건도 필요하지만 다양성과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원했던 것은 김치라는 단일품목이지만 박 교수가 김장문화 등재를 추진한 이유다. 김장문화가 공동체 문화로서 문화인류학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신청서를 보면 김장의 사시사철에 따른 준비과정과 정성스럽게 묘사돼 있다. 늦봄의 젓갈과 여름의 천일염, 늦가을의 담그기와 함께 김장독을 땅에 묻어 오랜 기간 발효시킨 지혜를 강조했다. 또 남녀노소 다 참여해 김장을 담그는 풍습이나 이웃 간 품앗이 등 공동체의 ‘정(情)’도 소개했다. 현대 한국가정에서 사용되는 김치냉장고가 과거 발효를 위해 땅에 묻은 김장독의 환경을 재현했다는 점도 기록했다.

민족주의 넘어서는 다국가 등재

문화유산 사업에서 각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맞지 않다. 그래서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기 위한 ‘다국가 등재’도 추진되고 있다. 비슷한 유산을 가진 여러 나라가 함께 공동등재를 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난 3월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와 한국이 함께 추진해서 ‘줄다리기와 공동체 문화’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인류학자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해 뿌듯하다”며 웃는 박 교수는 최근 다국가 공동등재가 민족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문화 ODA에 관심 가질 필요성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자국의 국가안보와 국가발전, 인간안보 전략 차원에서 일찍부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추진해 왔다. 중국도 1990년대 들어 대외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제적인 ODA 규모는 약 1283억 달러(2012년)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약 15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1999년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아왔다. 지난 2009년 ODA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nference,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아직 UN의 권고 기준에 한참 밑도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문화 ODA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에서 문화부문 예산은 약 0.33%에 불과했다. 문화는 공동체와 구성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고양하는 데 효과가 크다. 또 박 교수는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를 도모하는데도 문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면 산업화와 민주화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앞으로 ODA 문화유산에 더 많이 참여할 계획”이라며 “문화적 ODA는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제협력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적인 시각을 벗고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리더십으로 자리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을 원조하는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문화재위원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문화인류학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경험과 최신 경향을 설명하며 “학자의 삶이 수동적이거나 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그녀의 연구실을 둘러보는데 음식관련 만화책이 유독 눈에 띄었다. 박 교수는 ‘식객’ ‘초밥왕’ ‘맛의 대가’ 등 시리즈로 나온 만화책의 전권을 즐겨본다며 웃었다.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만화책에서도 드러나는 듯 했다.

글 · 그림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박상미 교수의 주요논문〉

“무형유산과 보존원칙: 논의의 쟁점과 새로운 지평” 『세계유산의 보존가치: 2011세계유산포럼 자료집』, 2012, 77-86.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생애사: 소비문화와 장소정체성의 인류학적 연구” 『한국 도시의 다양한 변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2011년 제4차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1, 67-76.

“커피의 소비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에서의 미국적인 것의 의미” 『우리 안의 외국문화』 서울: 도서출판 소하 211-235쪽 (2006년).

“문화유산 논의에 있어서의 토착성과 조국가성” 『사회과학논집』 제 24권 1호 (2006년 8월)

“음식문화의 정체성과 경계 넘기” 『현상과 인식』 (2003년 여름)

“McDonald's in Seoul: Food Choices, Identity, and Nationalism,” in Golden Arches East, edited by James L. Wats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Tourism in Korea,”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Local Communities in East Asia, edited by Liu Tik-sang, Hong Kong, China:

South China Research Center,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ong Kong Heritage Museum, 2011, pp. 75-82.

“Exoticizing the Familiar, Domesticating the Foreign: Ethnic Food Restaurants in Korea,” in Korea Journal, vol. 50 no. 1 Spring 2010, pp. 110-132.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김태훈 기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는 연습

수습기자를 거쳐 이번 학기에 정기자로 활동하며 어느덧 네 번째 학보를 만들었다. 신입 총장과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기자활동을 시작하게 돼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다. 이번 학기 우리학교 구성원은 새롭게 나아갈 외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또한 학교의 발전상을 되돌아보고 이를 자축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학교 역사에 크게 남을 만한 사건들이 있었던 이번 학기, 학보에 학교의 경사를 기록할 수 있어 행운이었다.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기사거리가 많다는 것도 좋은 점이다. 하지만 기자로 활동한 덕분에 총장 이·취임식과 개교 60주년 행사에 가려 못 볼 수도 있었던 학내의 많은 문제점들을 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

학내 언론 기자로서 외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학보의 지면을 채울 기사거리를 찾아보면 학교 곳곳의 자그마한 소식이라도 찾아내야 한다. 그러다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학내구성원이 신입 총장을 맞이할 준비에만 몰두하는 와중에도 공릉동 외국인 교원아파트에 거주하는 교원들은 낙후된 시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학기 첫 신문을 만들기 위해 찾았던 공릉동 외국인 교원아파트는 30년도 넘는 건물이다. 이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밖엔 없다고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 방침은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않았다.

총장 취임 이후엔 모든 학내 구성원의 관심은 개교 60주년 행사에만 집중됐다. 당시 타 대학의 청소노동자 파업이 한창이었지만 우리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은 주목받지 못했다. 두 번째 신문을 만들면서 만나본 노동자들은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도 없고 용역업체 관리자가 노동자의 인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주변 대학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할 때 우리학교의 노동자들은 동참하지 못했다. 기자가 아니었다면 '우리학교 노동자들의 처우는 파업 노동자들의 처우보다 낫기 때문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거겠지'라 생각하고 지나쳤을 일이다.

또한 서·동양여대학의 신입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학장을 만나면서 처음 예상했던 정시입학생들의 소속감이 부족한 점 외에도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자활동이 아니었다면 개교 60주년과 신입 총장 이·취임식이라는 큰 행사에 묻힌 속사정을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것이 기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돌아보면 작성한 기사 중 한쪽의 의견만 내보이거나 다방면의 취재가 부족해 단순 현상만 전달한 기사도 있어 부끄럽기도 하다. 필자는 기사를 쓰면서 배워가는 중이고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깨너머 듣는 교양

최 윤 (교양학부 과학사 과목 강사)

'두 문화', 균형 있게 바라보기

과학의 역사라고 이름 붙은 과목을 강의하다 보면 학기 초마다 겪게 되는 경험이다. 첫 주에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학생이 다가와서 질문을 한다. "선생님, 저는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한데 정말 잘 몰라서요, 이 과목이 과학에 대해 깊이 들어가고 수식 막 나오고 그런 수업은 아니죠?"라는 것이다. 과학만큼 역사에 관심을 두는 수업이니 걱정 말라고 대답하곤 하지만, 막상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과학 앞에서 여지없이 작아지는 학생들을 만난다.

왜 로봇과 공룡에 열광하고 별자리를 외우던 꼬마들이 자라서 과학이나 수학이라면 흠칫하게 돼버렸을까? 물론 어려운 문제 풀이에만 매달리게 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의 싹을 잘라 버리는 입시 교육의 책임이 크지만, 여기에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두 문화'의 영향도 있다. 우리나라는 유독 일찍 청소년기에 문과와 이과로 진로를 나눈다.

그 때부터 두 집단의 학생들은 다른 것을 배우고 다른 관심을 갖게 되며 서로의 영역을 넘보는 것을 피하게 된다. 즉, '과학기술 문화'와 '인문문화'를 일찌감치 나누고, 과학 기술을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분리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 기술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면 과학에 대해 이해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두 문화의 심각한 괴리는 현대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와 새로운 발상을 어렵게 한다. 현대 사회는 압축적으로 성장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소위 '두 문화'의 시각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 '통섭'이나 '융합' 역시 이런 다양한 관점과 문화의 교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이공계 학생들

에게도 인문학이나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은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과학 기술에 대해 갖는 관심은 여전히 기술경영과 같은 일부 분야에 제한돼 아쉽다.

'과학'은 복잡한 수식이나 그래프로 이뤄져있는 것도 아니고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만도 아니다. 과학이란 자연의 질서에 대한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해석이라 할 수 있고, 과학사란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탐구와 토론의 과정이다. 사실 이것은 다른 학문의 역사와도 다르지 않다. 다른 학문들을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대학에서 두 문화의 단단한 벽에 작은 틈을 내어 다른 영역에 발을 담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분명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훨씬 풍부하고 새로운 자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작은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이들에게 박수를!

일시
정지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글로벌배움터 노천극장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했다. 많은 학생들 역시 이번 사고의 어린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분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명수당에는 노란 바람이 불었다. 지난 6일 하늘도 같이 슬퍼하듯 대관령에서는 33년 만에 가장 늦은 눈이 내렸다. 이번 봄, 너무나 춥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지나호를 말하다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조성은(일반·중어중문 13)

외대학보의 발전을 기대하며

이제껏 봐왔던 외대학보 중에서 지난 호의 완성도를 가장 높이 평가한다. 기자들이 흘린 땀과 직접 발로 뚫은 흔적들을 기사에서 고스란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자들이 보기에는 아직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

먼저 각 면의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주제의 기사를 선택한 부분이 많았다. 4면의 기사들 중 심층보도가 아닌 받아 적은 내용의 기사가 일부 있었다. 그 내용 또한 학생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아 흥미가 떨어졌다. 차라리 학교가 고쳐야 할 점을 심층보도에 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 교수학습개발원의 열악한 화장실 시설이나 학교 내 강의실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만평코너의 그림과 스토리가 '만화를 그려 인물이나 사회를 비평한다'는 코너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아 차라리 코너 명을 '쉬어가기'로 변경하면 적절할 듯하다.

내용면에서는 다음 달 학교 행사에 대한 알림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5월은 학교 축제 및 각종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예정인데 그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또한 6면 기획기사의 취지는 좋으나 독자들을 지

루하게 만든다는 의견이었다. 단순히 실외의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기사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학교의 지저분한 강의실 환경과 실내먼지에 대해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해당기사의 통계자료도 명수가 아닌 단순 비율로만 제시돼 기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

7면의 '룸메이트 때문에 고민하는 자'는 독자들의 흥미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기사지만 각 사면에 대한 출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익명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지만 최소한 이니셜이나 이름의 성이라도 나와야 기사에 대한 사실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운동장' 섹션을 없애고 영화나 연극, 공연 소개 등의 새 코너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끝으로 지난 호가 이전 969호보다 좋았던 점으로 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보다 많았고 학내 브리핑의 정보가 유용했다. 5면의 '우크라이나인이 말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 교수가 직접 투고해 기사의 신뢰성을 한층 더했다. 또한 8면의 사회문화 기사의 적절한 색감과 구성 및 내용은 독자에게 보는 즐거움을 전했다.

지나호를 말하다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정예지(국제지역·프랑스 14)

독자의 시선에서 보는 외대학보가 되길

지난 호는 다양한 소재의 기사가 많아 이전에 비해 다채로워진 외대학보를 볼 수 있어 좋았다. 또한 1면부터 눈길을 끄는 '또 한 번 학교 밝히는 외대스캔들'이라는 헤드라인은 참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은 보완되지 않아 아쉽다. 이러한 점이 여실히 드러난 곳은 4면의 심층보도다. 심층보도지만, 게재된 3개의 기사 모두 단순 정보 전달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 중 다소 지면 비중이 높았던 '미래위, 사업처 신설'보도는 정보 전달에만 치중하다 보니, 독자로서 미래위와 사업처의 역할이나 취지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다. 세계자연보호기금에 대한 기사 또한 마찬가지로였다. 더불어 같은 지면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제목 역시 내용과는 거리가 오히려 멀어졌다고 느낄 정도로 추상적이다. 차라리 소재목인 '미래위, 사업처 신설'이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 제목에 적합하다. '우리학교, 세계자연보호기금과 손잡다'라는 제목은 'WWF와 한국외대 교류협정 체결'이라는 구체적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전달성이 더 좋을 것이다.

7면 기획 기사는 소재도 새롭고 내용도 공감하면서 읽기에 좋았다. 첨가된 사진 또한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시선을 끌었다. 다음 지면의 공유경제 기사 또한 내용이 유익하고 전체적으로 가독성이 좋았다. 하지만 9면의 학술 기사는 심층적이며 유익하나, 지면 활용도나 가독성의 측면에서 그다지 눈길이 가는 기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기사가 일 본 문학과 관련된 도서를 직접 추천하는 형식으로 적극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을 모색했으면 내용 전달에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휴스토어의 디자인 또한 가독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의 휴스토어는 책제목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가 잘 구별되지 않아 눈에 띄지 않았다. 제품명을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준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휴스토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싶다. 외대학보는 전체적으로 사진의 비중이 적다. 기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진의 비중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사진의 크기를 키우고 기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사진이 많아지길 바란다. 신문은 기사마다의 내용만큼 가독성을 고려해 편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기사 내용의 질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편집을 통해 독자에게 다가가는 외대학보가 되길 바란다.

외대 속의 또 다른 외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업본부

직원의 말풍선

박성건
사업지원팀장



우리학교 구성원 중 많은 수가, 특히 양 배움터의 만 오천 학생들 중에서는 졸업 전까지 우리학교에 사업본부가 있는지 모르고 졸업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사업본부는 외국어연수평가원, 평생교육원, TESOL전문교육원, 국제사회교육원, 한국어문화교육원, FLEX센터, 통번역센터, I-외대, 영재교육원, 출판부 등 총 10개의 산하기관이 있다. 외국어 및 지역학 교육의 노하우와 전세계에 걸쳐 뻗어 있는 동문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본부는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최상의 교육서비스 및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해 1월 사업지원처 및 사업지원팀을 신설해 사업본부 산하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서울배움터에 위치한 외국어연수평가원 및 평생교육원은 최고의 강사진을 통해 외국어과정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수강 시 외대가족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TESOL전문교육원은 수료 후 총장 명의의 TESOL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등록 시 동문 장학금 수여는 물론 우리학교 대학원 입학 및 미국 제휴 대학 연수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외대에서는 재학생이 어학연수를 통해 어학실력도 키우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인정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한국어문화교육원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사가 되기 위한 기초과정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역시 우리학교 구성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재학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FLEX 센터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가공인 외국어시험인 FLEX시험을 연간 4회 정규시험과 기업체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시 평가를 진행한다. 재학생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모의고사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FLEX 수험서를 출간하기도 한다.

그 외 국제사회교육원, 통번역센터, 출판부 등은 외대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진 않지만, 국내 유수의 기업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수사업 및 교재출판 등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이미 국내 최고의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기관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조금은 낯설지만, 실용적인 우리학교의 가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현해가고 있는 국내 최고의 글로벌 HRD 기관들로 구성된 사업본부 산하기관에 대한 외대인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만평



빈 의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30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11일 현재 탑승객 476명 중 172명만이 구조됐으며 희생자는 275명에 이른다. 29명은 아직도 실종상태다. 이번 사고가 대형참사로 확대된 데에는 선박 자체의 문제와 선원들의 무책임은 물론 정부의 대응 미숙에도 원인이 있다. 침몰사고 당시 주무처인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사이에 신속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에 혼선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해경은 인명구조 명령보다 선체인양 명령을 먼저 내리면서 구조작업에 한 발 늦었다.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 주먹구구식으로 잠수인력을 투입하다보니 효율적인 구조작업을 진행하지도 못했다.

▲적시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졌다면 세월호의 인재(人災) 규모가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고로 박근혜 정부는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드러냈다. '국민 안전'을 강조하며 안행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만들었지만 사고의 초기 대응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보와 함께 재난을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총괄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운영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현 정부에서 안행부에 전반적인 재난관리 주도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NSC 위기관리센터에 비해 현장 대응력과 같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세월호 사고에서도 현장과 연계해 적절한 기능을 해내지 못했다.

▲재난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과 이어진 정부의 조치는 실망스러웠다. 실천을 동반하지 않은 간접적인 사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사고 초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무책임에 대해 '살인파도 같은 행위'라 발언하기도 했다. 사후 수습을 위한 방잠이나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반성이 아닌 책임자 처벌만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의 발언이 정부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

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동일한 상황에서 서방의 경우 지도자의 자리 보전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해 상반기에는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 리조트 붕괴 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어 최근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등으로 심각한 수준의 인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매년 사고대응을 위한 사전준비는 돼있지 않았다. 사고 이후에야 다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보여주기식의 부처 신설보다 기존의 기구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경험 없는 선장은 파도를 피해가지만 경험 많은 선장은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광고를 통해 위기에 강한 대통령을 역설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호는 가라앉고 있다. 파도에 직면해 침몰할 것인지, 항해를 이어갈 것인지는 선장에 달렸다.

사설

가정의 달에 해야 할 일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같이 평소엔 너무나 가까워 "결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국가에서 제정해 준 날들이 가득한 가정의 달이다. 이런 가정의 달 5월이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매우 우울하게 됐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이번 5월은 무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그 뜻을 더욱 살피 의미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이 가득한 가정의 달은 감사라는 단어와 잘 어울린다. 감사의 마음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사회를 밝게 만들며, 자신의 삶을 활기 넘치게 만든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사가 항상 상대적이라고 여긴다. 상대방이 내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베풀어 줬는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무게를 따진다. 주고받음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내게 소중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모습이다.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라도 그렇다. 내가 베푼 것은 언제나 많고 그 답례로 상대방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다고 생각한다. 또한 베푼 것은 오래 기억하고 받은 것은 쉽게 잊는다.

그러나 무심히 지나치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풀 한 포기도, 일단 내 의식 속으로 들어와 관계를 맺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 우리나라를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감사의 마음은 주고받을 때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감사를 마음속 깊이 묻어두지 말고 표현하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해도, 편지를 써도 좋다. 성의 있는 선물로 마음을 대신해도 좋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겉으로 표현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즐거워진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감사하는데 익숙치 않다. 내가 고마워해야 할 것은 없는지 먼저 생각해보자. 그러면 대상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말 하찮은 것이더라도 소중한 존재로, 미워할 수 없는 대상으로 거듭난다. 실패가 점점 푸르러 가는 가정의 달에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고마운 분들을 한번 떠올리고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생활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5월이 되길 바란다.

인생은 환갑부터

우리학교가 이번 해 60주년을 맞았다. 4월 18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서울배움터 오바마홀에서 열렸다. 교직원들 비롯해 동문, 학생들까지 이번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나 세월호 침몰이라는 침통한 국가적 사안에 최대한 경건히 진행했다. 특히 오후 7시에 있었던 '외대인의 밤'행사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하기도 했다. 행사는 모두의 바람대로 뜻있고 감동스럽게 마쳤다.

우리학교는 1954년 종로 한 빌딩에 5개 학과로 개교해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언어를 가르치며 대학평가 국제화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명실상부 '제 1의 외국어대학'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선택해 방문하기도 했다. 우리학교의 자랑스러운 12만 동문은 세계 각지에서 이름을 떨치며 활약하고 언론, 외교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한국외대'는 당당히 입지를 구축했다.

우리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보자. 지난 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KBS의 개그맨 김준현은 우리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또한 국민배우라 불리는 배우 안성기 역시 베트남어과를, 또한 KBS의 9시 뉴스를 진행하며 KBS의 간판 아나운서인 이현주 역시 우리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다.

이렇듯 자랑할 만한 성과에 비해 우리학교는 국내 다른 유수대학보다 환경적 요건은 훨씬 열악하다. 서울배움터의 부지는 여타 대학보다 현저히 작은 규모이고 글로벌배움터 역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상당히 불편한 교통체계로 몇 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굴하지 않았다. 작은 캠퍼스에도 불구하고 우리학생들의 배움의 열의는 꺾이지 않았고 우리만의 심지(心志)로 세계무대를 캠퍼스 삼아 활동영역을 넓혔다. 2만 5천여 평의 작은 캠퍼스는 국내를 넘어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대학이 된 것이다.

백세 시대가 펼쳐지면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등장했다. 우리학교 또한 지난날의 역사를 밑거름으로 영광의 재도약을 개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해부터 본·분교가 통합돼 본격적인 대형 대학으로서의 첫 출발로 양 배움터가 상생해 나아가고 현재 대학사회가 직면한 '대학 구조조정'의 파고를 이겨낸다면 앞으로 100년 외대는 그 어느 대학보다도 빛날 것이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깨너머 듣는 교양(7매) / 직원의 말풍선(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신민지(통번역 · 태국어 11) 010-4002-0299, 86hufspress@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편집장 신민지

부장 이은결

제작 경보미디어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www.oedaeagbo.com

facebook / newhufspress

연극 연출가 카티 라팡(Cathy Rapin)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연극으로 소통하다

▲연극 〈무대게임〉 대본리딩 현장에서의 라팡 교수. 이 날은 대본보다 두툼한 연출 노트를 준비했다. 지적인 연출가라는 평가를 받는 그녀는 "배우들을 작품에 최대한 깊이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과 함께 작품 분석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말했다.

조혜민·김민정·김지현

출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연출가전 〈It's true〉에 초청받게 됐다. 이 때 공연한 이오네스코의 〈왕은 죽어가다〉를 계기로 프로의 길에 들어선 셈이다.

라팡 교수는 16년 이상의 아마추어 연극 생활 끝에 전문가의 인정을 받아 프로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첫 작품 상영 후 경제적인 문제로 한동안 공연을 만들 수 없었다. 작품을 무대 위에 올릴 수 없는 상황에도 라팡 교수는 그녀와 한 팀으로 번역을 해온 임혜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함께 프랑스어권 희곡 소개를 포기하지 않았다. 극단 이름도 없었고 무대를 설치할 수도 없었지만, 배우들이 움직임 없이 대사를 읽어주지만 하는 희곡 낭독 공연은 이어나갔다. 그들의 열정은 2009년 마침내 '프랑코포니'라는 정식 극단으로 열매를 맺게 됐다.

Q.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2009년 작품 〈고아뮤즈들〉로 공연을 재개하면서 극단까지 세웠다. 극단을 창단한 배경과 극단을 통해 작품 활동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다.

〈고아뮤즈들〉이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캐나다의 작가에게 허가를 받는 등 외국 공연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단체의 이름을 써야 해 그 때 처음으로 프랑코포니라는 극단 이름을 만들었다. 연출가인 나와 번역 겸 드라마투르그 임혜경 교수가 주축이었다. 이 외에도 번역가 2명, 디자이너 1명 등 한국에서 극단을 만들기 위한 최소 인원인 8명으로 구성했다. 최소 인원의 극단이지만 이름을 갖고 나니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프로 극단으로 정식 등록이 되면서 이름도 알려지고,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출연해 줄 배우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무대에 올릴 작품을 찾는 데에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항상 극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고 느끼는 등 감정적인 변화도 컸다.

*드라마투르그: 극단에 상주하는 비평가로서 희곡의 창작과정에서부터 프로그램의 제작·캐스팅·리허설·공연 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연의 전 과정에 관여한다. 〈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왼쪽은 라팡 교수의 극단 '프랑코포니'가 이름을 갖게 된 공연 〈고아뮤즈들〉의 포스터, 오른쪽은 '프랑코포니'가 이번 해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게릴라극장에서 공연한 〈무대게임〉의 포스터다.

위해 80명 정도의 간부급 경찰들이 극장 전체를 빌려 공연을 관람한 적도 있다. 이번 해 상연한 〈무대게임〉도 권력과 지배, 독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무대에 올린 모든 작품에 사회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 프랑스어권 나라의 연극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이 연극이 새로운 언어와 지역에 대한 연구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현대극을 주로 택한다.

Q. 이번해 제 1회 서울연극인대상에서 〈무대게임〉을 통해 프랑코포니의 임혜경 교수가 번역상을 수상했다. 극단에서도 번역에 남다른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번역을 할 때 프랑코포니만의 원칙이 있는가?

극작품의 번역은 번역가가 끝났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이 무대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수정을 거친다. 번역자와 연출가와 배우의 목적이 다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번역자는 문학적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작과 한국어로 옮겨진 대본이 큰 차이가 없길 바란다. 반면에 연출가는 대사를 통해 어떤 의미를 주고 싶은지를 고려하고, 배우는 무대 위에 올라가기에 실제 발음과 뉘앙스를 중시한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우리는 2주 동안 배우들과 대본 리딩을 한다. 대본에 원작과 차이가 있으면 수정한다. 또 한국어가 워낙 예민한 언어기 때문에, 배우가 실제로 발음하는 데에 어렵지 않도록 바꾸기도 한다. 그런 작업을 거치기에 같은 작품이라도 배우가 바뀌면 그의 말버릇이나 액센트에 따라 대사가 수정된다. 수정 작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 다른 극단들은 번역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각색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원작과 번역된 작품이 너무 달라지는 일도 생긴다. 우리는 절대 각색을 하지 않는다.

Q. 우리나라 극작품을 프랑스에 번역해 소개하는 작업과 프랑스어권의 연극을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극과 프랑스 연극의 차이를 느낄 때가 있나?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차이를 느낄 때가 많다. 지금까지 한국의 희곡을 20여편 정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출판했는데, 번역한 텍스트만 봐도 한국의 연극은 짧은 대화로 이뤄져 있다. 인물이 두 사람만 있어도 대사가 빠르게 '딱, 딱, 딱' 치는 듯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다. 프랑스의 연극은 더 시적이고 서정적인 측면이 강하다.치고 받는 대사로 이뤄진 한국 연극과 달리 프랑스 연극에는 독백도 많다. 특성상 한국 희곡에는 항상 인물이 존재하는데, 프랑스 작품 중에는 역할이 나와있지 않아 누가 말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작품도 있다. 이번 해 상연한 〈무대 게임〉에도 독백도 아니고 방백도 아닌,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새로운 대화 형태가 등장한다.

Q. 3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 연극과 함께 살아왔다. 연극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연극은 우리가 가진 인간성에 가장 가까운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극작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뇌와 같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생각을 한다. '어떤 색으로 립스틱을 바르자', '오후에 어떤 일정이 있냐'와 같이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모두 연극이다. 다시 말해 우리 자체가 연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를 만든다는 것과 다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극은 살아있는 것이다.

Q. 연극을 연출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도 쓰고 번역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꿈이 궁금하다.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면 좋겠다(웃음). 농담이고, 하나의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된다'가 아니라 '되어간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교수가 되기 위해 교수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야 하고 여러가지 문제와 싸워나가기야 한다. 좋은 연출이 되기 위해서 계속 연출을 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죽을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 안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항상 베레모를 쓰고 있는 키가 작은 외국인 교수님'. 캠퍼스를 오가며 카티 라팡 교수를 본 적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녀를 이렇게만 기억할 수도 있다. 교수님으로만 익숙했던 그녀는 강단 밖에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프로 연극 연출가다. 극단 '프랑코포니'의 연출가인 그녀는, '국제 프랑스어 사용국 기구'라는 뜻의 극단 이름답게 세계 프랑스어권 지역에서 쓰여진 현대 작품들을 번역하고 공연으로 제작하고 있다. 연극 연출가, 교수, 번역가라는 1인 3역으로 쉴 틈 없이 펼쳐지는 그녀의 인생을 들여보자. 김재훈(일반·불어불문 12) 군이 인터뷰 자리에 함께 해 통역을 맡았다.

Q. 최인훈 작가의 희곡을 다룬 논문으로 파리 7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문학을 연구한 이유가 궁금하다.

처음에는 탈춤 덕분에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탈 자체와 탈춤의 풍자와 해학에 끌렸다. 탈춤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 한국의 현대극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 대학에 한국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분에게 직접 지도를 부탁했다. 그 교수님을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가르친 첫 세대라고 기억한다. 이전에는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교수가 된 적이 없었다.

Q. 프랑스에서 교수가 된 한국인 첫 세대인 스승처럼, 1984년 첫 작품으로 한국의 서울여자대학교를 택했다. 혼자서 외국에 오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프랑스에서 만난 한국인들에게 예술 작품이나 음식 등 그들의 문화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래서 호기심이 있었지만, 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독재 정권 시절에는 프랑스에 돌아가고 싶었던 순간도 많다. 당시에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지금처럼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의사소통도 힘들었다. 외국인이 없던 패라쇼핑을 하러 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그때마다 미국 사람이라고도, 소련 사람이라고도 불렀던 것은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Q. 계속 교직에 몸담다 2001년부터 연출가의 길로 들어섰다. 본격적으로 연출가의 길로 뛰어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듣고 싶다.

1985년 교내에서 한국인 연출가와 함께 조연출로서 아마추어 연극을 시작했다. 그 연출가는 한국어밖에, 나는 프랑스어밖에 못 하니 말이 아닌 연극으로만 소통할 수 있었다. 2004년까지 2년에 한 번씩은 원어연극을 공연했는데, 1992년에는 프랑스 아비뇽 연극 페스티벌에 초청받기도 했다. 이 때 이강백 작가의 〈호모세파라투스〉라는 작품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상연했다. 이 작품이 프랑스 무대에 오른 첫 한국 작품이다. 이처럼 교내 뿐만 아니라 일반 소극장에서도 아마추어 연극을 계속 해오다 한국인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젊은 여성 연